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심의총평

### ■ 1차 지원심의 (시·시조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시·시조 A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16: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은 문학적 역량을 갖춘 뛰어난 시인의 시집 발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인들의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시단의 활력과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심의기준은 공모안내에서 제시한 심의기준 1) 작품의 우수성, 2) 신청 작가의 역량 및 발전 가능성, 3) 선정 후 기대되는 발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이 지원 작품들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후에 함께 모여 심사위원들이 각각 평가한 합산 결과를 놓고, 한편 한편 후보작들을 검토·선정하였음. 평가결과가 동점인 대상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우대하기로 하였음

먼저 지원사업에서 공지한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공모 작품들을 검토하였고, 무엇보다 제출된 작품의 작품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심사위원들에게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집을 먼저 확인·선정하였고, 이후 심사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대상의 경우 작품들을 재차 검토하여 시적 개성과 시 언어의 장력, 참신성 및 완결성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2차 심의 후보작들을 선정하였음

전체적으로 1차 심의 대상작과 그렇지 않은 작품들 사이의 간극이 비교적 분명해서 주로 2차 심의에 불일 작품군을 확정하는 데 많은 논의를 하였음. 일부 지원작의 경우 심사위원 사이에 평가가 엇갈렸지만 상당수의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에게 공히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심의에 선정되었음. 1차 심의를 통과한 작품들은 대체로 시적 개성과 언어표현 능력, 시적 장력 등을 갖춘 것들이었고, 일부 작품의 경우 시적 개성과 참신성은 뛰어났지만 표현의 과잉이나 작위성 등이 문제가 되어 후보군에서 제외하였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출판시장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문학작품집의 발간은 이전보다 더 지난해져서 한국문학예술위원회의 문학 발간활동 지원 사업은 매우 요긴한 사업이며 지원사업의 확대가 보다 절실하게 요청됨

아울러 지원작 중에 적잖은 대상이 결격 사유에 해당됨으로써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음. 차기에는 사업 공지사항에 결격 사유에 대한 안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모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행정적 지원 작업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함

1차 심의위원회 시·시조 A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시·시조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시·시조 B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은 올해(2023년) 발간 확정된 시집·시조집을 대상으로 발간 및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143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시집 15권, 시조집 3권을 1차로 선정하였다.

심의는 작품의 우수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평가하였다. 그 외, 향후 문학적 성과에 대한 고려와 발간 이후 문학계 내부나 대중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도 감안하였다. 기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성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작품의 경우, 우선 제외하였다. 일정한 문학적 수준과 역량을 두루 갖춘 작품들 위주로 높은 점수를 매겼으나, 몇몇 이력이 오래된 시인들의 경우, 자신의 기존 시 세계에 고착되어 별다른 발전 소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선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대체로 많았다. 지역 문학계의 고유한 특수성을 많이 배려하려 했으나, 도드라진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 시조의 경우, 한정된 매체 안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경향이어서 작품 세계가 그다지 다채롭지 못했다.

시집들의 작품 수준은 대체로 평이었다. 1차로 추려낸 15명 외에도 다른 좋은 작품 집들이 있었으나 심의위원들 사이에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 조율이 곤란할 정도였다. 어떤 이의 순위를 내리고 다른 이의 순위를 올리는 방식도 따져봤으나 최초 평가한 심의위원의 판단을 기계적으로 조절해 순위를 바꾸는 건 옳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시조는 놀랄 만큼 흥미로운 작품이 많아서 반가웠다. 전통 율격에 충실하면서도 당대의 사회상이나 문화적 변화를 잘 묘파한 작품들이 많았다. 시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에 심의위원 모두 동의했다.

대체로 요즘 문학계의 주류적인 경향 - 예컨대 감각적이고 내밀한 환상을 파편적인 이미지로 직조하는 경향과 전통적인 서정시로 양분되는 편이었다. 두 경향 모두 필요하고 소중하나 너무 관성화되고 평면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기만의 언어란 세계의 흐름과 때로 충돌하거나 거슬러 가기도 한다. 깊이와 폭이란 언어의 기술적 숙련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아우른다. 오늘만을 쓰는 건 오늘마저 방기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보다 깊고 유장하면서도 세밀한 언어가 아쉬웠다. 1차 선정된 분들은 적어도 그런 '기미'나마 보여주는 작품을 쓰고 있었다. 더 내밀하고 더 치열하게 뽐는 시를 기대하겠다.

1차 심의위원회 시·시조 B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차 지원심의 (시·시조 분야)

- 심의분과 : 2차 지원심의 시·시조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1: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은 올해 내 출간이 예정되어 집필이 완료된 작품집 한권 분량의 원고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작품의 기획과 형식 그리고 작가의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작가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 선정되었을 시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문학 발전의 기여도, 우리 문학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여부 등등 심의 기준을 준수했다. 무엇보다 엄정하게 지원신청 서류의 미비점 여부 또한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3명의 심의위원은 심의회의 전 사전 전수검토를 진행했고, 최종심의 당일 전체 회의에서 시 15건, 시조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심의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서로 모른채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전검토 결과는 거의 일치했다.

최종심의 단계에서는 첫째 내용과 형식의 독창성과 시의성, 둘째 새로운 시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시의 경향은 전통적 서정시가 압도적이었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살피는 작품, 실험적인 시도와 젊은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작가만의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개성적인 언어를 개발하는 것, 분명한 차별성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개인적인 발화에 그친 것은 아닌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시의 본령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시조의 경향은 다채로웠다. 중견 시인들은 기존의 스타일을 지키면서 전통에 대한 치열한 계승의식으로 품격 있는 시를 만들었다. 신진 시인들은 새로운 소재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인지 시조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전통성과 현대성의 경계에서 시조는 시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원 신청에 참여한 모든 시인들께 시의 지평을 넓혀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차 심의위원회 시·시조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소설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소설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6: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 소설(중단편 및 장편) 부문 심의에서는 문학 창작을 향한 투고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집필 및 출간계약이 완료된 작품집을 대상으로 복수의 심의위원이 작품성을 기준으로 선정작을 선별하여, 선정된 작가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집 발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확장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날이 갈수록 종이책 시장이 위축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작가들의 집필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응모자의 등단 이력은 물론 최근의 작품 활동 사항들도 두루 살폈지만 무엇보다도 투고작의 작품성과 출간 이후의 기대효과를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문학의 질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인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학 작품들은 평단의 지지와 독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몇몇 소수 작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품집을 출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다소 소외된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작품집의 창작과 출간이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임은 감안하면서, 심의위원들은 가능하면 작품성을 위주로 선정작을 선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1차 심의에서 중단편집과 장편소설 100여편을 검토하였고, 심의위원들의 개별적인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20여편을 선정하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들의 삶을 톺아볼 수 있는, 즉 보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문학적 시도를 보여주면서도 탄탄한 기본기를 보이는 작품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소재를 취하면서 밀도 있는 전개를 보여주었지만 역사 소설의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장르 소설의 익숙한 문법을 따르면서 새로운 변주를 보여주지는 못한 경우, 주제와 인물의 설정 등이 크게 공감을 사지 못하고 삶에 대한 개인적인 회고에 그친 경우, 설정과 소재가 참신하였지만 문장이 평범하거나 상투적인 경우 등은 아쉽게도 선정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 많은 작가들을 지원하지 못해 아쉬움이 큼니다.

선정된 작가께서는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온갖 진기하고 자극적인, 그러나 휘발성이 짙은 콘텐츠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한 문장 한 문장을 고심하며 작품을 완성해나갔을 작가들의 노고가 독자들에게 온전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며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작품 창작을 위해 오랫동안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작가들의 노고가 쉽게 무시되거나 폄하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고대합니다. 이번 심의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도 독자들과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그 문학적 가치를 증명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 소설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차 지원심의 (소설 분야)

- 심의분과 : 2차 지원심의 소설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5: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사업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작품집 발간까지 연계하여 문학 작가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의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 소설심의의 기준은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등을 근거로 했으며,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거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작품의 실험정신을 높이 샀다.

심의는 예심을 통해 올라온 작품을 세 명의 심의위원이 사전 검토를 마친 뒤, 대면 심의회의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선정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한 고려사항은 우수작품집 발간이라는 본 사업의 기본취지였으며, 이에 따라 작가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와 작품의 문학적 성 및 안정성을 유념해서 살폈으며, 선정작의 출판이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작품을 놓고는 첫작품이거나 과거 지원 전적이 적은 작가에게 점수를 주어 이왕이면 더 많은 작가에게 지원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은 총 11편으로 중단편 6편, 장편 6편이며, 선정된 작가는 각 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선정 여부를 떠나 2차 심의에 올라온 작품은 서술이나 묘사에서 주제와 결부될 수 있게 서사를 밀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건 중단편과 장편에서 공히 장르적 다양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역사소설, SF 미래소설, 우화적인 소설 등의 비중이 작지 않았고, 동시대 청년 문제에 천착해 당면한 현실의 고민을 풀어내려는 소설적 시도도 눈에 많이 띄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가볍고 툭툭 튀는 식의 유사한 문체를 만날 수 있었는데, 예각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한 젊은 작가들에게서 그러한 문체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잡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가볍게 쓴 듯하고 가볍고 재미있게 읽히지만, 주제나 울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소설을 여럿 만난 걸 생각하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절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심의에서 엄격한 심의기준의 적용으로 최종 선정된 11편의 작품 가운데 중단편은 판타지 기법으로 독특하고 발랄한 세계를 그린 소설부터 현실의 불안과 절망감을 묵직하면서도 예리하게 그린 소설까지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소설적 장치로서의 시공간을 소설의 서사와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소설적 상상력을 열어놓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장편 또한 역사, 여성 등 다양한 소재의 소설이 선정되었다.

심사를 마치면서 작가들이 부분적이고 예각적인 접근과 묘사로 현실의 문제를 노출해 질문을 던지는 단편의 고유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장편의 경우 장편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랄까 필요성에 대해 다소 무심한 면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시대적으로 지금은 문제의식이 집중되는 작품이 요구되는 전환시대이니만큼 현실과 진실에 대한 총체적 묘사를 주제로 연결시켜 굵직한 서사를 던져줄 수 있는 장편 소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 선정에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을 만큼 새롭고 재미있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옥석들 속에서 옥석을 가리긴 했지만 제외된 작품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반드시 많은 독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2차 심의위원회 소설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아동·청소년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동시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8일(목) 13: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모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 그간 약 1,500명에 달하는 작가에게 지원을 했다. 우수 작가의 작품집 발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문학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중견 작가와 유명 작가들의 본격적인 도약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3년 올해 역시 시, 소설 등 분야별로 총 852건의 다작이 접수되어 이들 중에서 60건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작품 우수성(50%), 작가 역량 및 발전 가능성(30%), 예상 발간 성과(20%)였으며, 우수 작품이 많았던 까닭에 점수 차별화가 쉽진 않았으나, 심사위원들과 단계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작품을 엄선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 분야 중에서 동시의 경우에는 응모 건수가 56편이었으나 아쉽게도 서류미비 등의 기초적인 결격사유로 몇 편은 본 심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탈락하였다. 안타깝지만 작가분들이 애써 준비한 작품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새삼 드리고 싶다. 운영진 측 역시 많은 사업과 작품들의 접수 및 관리로 노고가 많으나, 필요서류의 안내와 홍보 강화, 디지털 접수절차 간결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초 지원 사업을 오랜 기간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임은 분명하다.

올해 동시 장르의 경우,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디지털 시대상을 반영한 소재 언급이 눈에 띄었다. 다만, 이러한 소재들이 나름의 시적 감성이나 문체인식을 갖고 접근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일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시의성과 친근감을 높이는 것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상징성과 상상력을 제고하는 것에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작품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새로운 심상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시를 읽고 나서도 여운을 주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는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아동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되, 심층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탁월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아울러 동시의 특성을 고려해 실험적으로 텍스트의 시각화를 구현했거나 의성어, 의태어 등을 적절히 활용해 리듬감과 흥미를 높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어린 독자와 소통을 꾀하고 언어유희를 통해 동시의 또 다른 재미를 알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제의식과 결합하지 않는 형식적 차원의 단순 시도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선정 건수의 제약으로 일부 작품은 비교적 작품성이 우수했지만 조금 더 참신하거나

큰 편차 없이 고른 완성도를 유지한 작품에게 우선 기회가 갔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작가분들에게는 축하를,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드리며, 비록 금번 선정작에 들지 못했더라도 다음을 기약하고 보다 많은 작품이 출간되어 독자분들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1차 심의위원회 동시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아동·청소년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동화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8일(목) 16: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에 응모한 작품은 장편(동화, 청소년소설 포함) 92편, 중단편(동화, 청소년소설, 그림책) 30편, 총 122편이었다. 1차 심의는 5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15여일 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5월 18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대면 심의에서 열린 토론 끝에 장편 16편, 중단편 5편을 최종 선정했다. 작품의 문학적 우수성,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기대되는 발간 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의위원들은 무엇보다 문학적 완성도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같은 소재를 다룬 기존의 작품과는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났는지, 작품이 발간되어 어린이문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고루 살폈다.

중·단편에서는 아이들의 일상을 그린 생활 동화, SF, 모험, 판타지, 환경과 생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아이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잘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문학성이 뛰어난, 감동과 여운을 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 또 환경과 생태를 다룬 동화들이 특히 많았는데, 문학적 완성도보다는 에피소드로 끝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 작품들이 있어 다소 아쉬웠다.

장편은 역사물과 일상이야기,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 SF와 판타지 등의 작품들이 고루 있었다. 역사 동화가 특히 많았다. 상상력이 기발한 작품, 당시 시대 상황과 민초들의 삶을 잘 형상화한 작품, 주체적인 주인공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생동감 있게 그려진 작품 등등 작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읽는 내내 즐거웠다. 청소년소설의 경우 이국을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고민과 방황, 좌절과 극복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린 작품들, 세대 간의 소통과 따스한 공동체 문화를 그린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동화의 경우 상상력이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하지만 몇몇 작품의 경우 소재는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스토리가 작위적이거나 결말이 안이하고, 작가의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드러나며, 미래사회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상이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묘사되고 있는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역사 동화의 경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응모량이나 작품 수준에 있어 장편이 중·단편보다 월등한 것은 출판시장의 영향인 듯하지만, 뛰어난 단편이 좀 더 많이 창작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어린이들의 멋진 친구가 되어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차 심의위원회 동화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차 지원심의 (아동·청소년 분야)

- 심의분과 : 2차 지원심의 아동·청소년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1: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사업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작품집 발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차와 2차, 총 두 차례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었고 해당 작품의 문학적 수준(50%), 향후 발전 가능성(30%), 출간 및 우수작 확산 노력(20%)을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 아동청소년문학 분야는 동시, 중단편, 장편, 세 분야로 나누어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의기준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노력했다.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은 작품을 심의기준에 따라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수검토를 하였으며, 대면심사(6월14일)에서 심사위원 4인의 합산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면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의견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심사는 심사위원 모두가 입을 모아 상찬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문학적 성취가 높았고 선정된 작품은 견고한 편견을 가볍게 뒤집는 신선한 상상력, 세상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심의과정에서 동시를 읽으면서 눈과 가슴이 트이는 경험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회가 많았다.

장편부문에서는 유난히 역사동화가 많아 놀라웠다. 이는 현재 역사동화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전이 많아진 영향과 아동청소년문학이 시장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수의 작품이 작품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역사동화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역사동화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AI나 인공지능 등,

현실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새로운 기술 문명을 담은 작품은 많지 않아 아쉬웠다.

청소년소설 분야는 점차 소설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여 우려를 낳았다. 청소년 주체의 당사자성, 청소년만의 고민, 정체성 탐구 등은 청소년문학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중단편 분야는 생각보다 작품 수가 적어 아쉬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적은 작품 수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역량은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지가 있었다. 어린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중단편 작품은 아동청소년 문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도전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며 심사를 마친다.

2차 심의위원회 아동·청소년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수필 · 평론 · 희곡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수필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10: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확대하여 문학 작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1차(수필) 심의에서는 총 117종의 작품을 심의하여 총 24종을 선정하였는데, 진입 장벽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관대한 수필의 특성상 많은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다양한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 사라져가는 문화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까지 그 주제가 다채로웠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성찰과 좀 더 성숙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려는 작가들의 열정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수의 작품 중에서 소수 선정작을 선택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소수의 작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심의위원의 고충이 컸다. 각 심의위원은 주어진 기한 안에 최대한 치열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작품을 읽었으며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중요한 잣대로 여긴 것은 기본적인 문장력과 문학성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 가독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역량 등이었다. 1차 심의는 117종 중에서 24종을 선정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선정권에 든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개인의 일상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을 개진한 작품, 개인의 난관을 글쓰기로 치유하고 해쳐나간 작품, 거의 평생에 걸쳐서 쌓아 올린 글을 모아서 완성한 작품 등도 심의위원의 심금을 울리고 존경에 가까운 찬사를 드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전통 마을, 사라져가지만 소중한 문화 자산인 사투리, 제주도 4.3 사건, 과학의 관점으로 본 삶과 문학 등 참신하고 일관된 주제를 고수한 작품이 심의위원의 눈길을 더 많이 끌었고 인간 삶의 공간, 꽃, 운동, 요리라는 평범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인문학적 사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읽는 즐거움과 문학적 울림에서 더 큰 감동과 공감을 주었다.

독창적이고 특이한 주제는 고립과 특수성을 내포한 글감이라기보다는 주목받을 매력을 가짐과 동시에 다양한 삶을 통합하여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글감이라는 것을 이번 심의에서 통감하였다. 아울러 수필이라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장르 속에서도 정보와 문화적 가치가 동반한다면 좀 더 많은 독자로부터 공감을 얻고 즐거움을 주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산한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번 선정작들이 책을 좋아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감과 감동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기대한다.

1차 심의위원회 수필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수필 · 평론 · 희곡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평론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13: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본 사업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作品集 발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학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있는 작가(평론가)를 대상으로 우수작품에 대해 지원금 교부를 통해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한국 독자 대중에게는 우수한 문학 작품을 소개 및 확산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의 심사기준은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30%)',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20%)', '문학적 수준(50%)'이다. 응모작들은 공통적으로 문학적 수준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1차심의에서는 문학적 역량 및 우수작품으로서 확산 노력에 가중치를 두고 심의하였다.

당선작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었다. 첫째, 오늘날 한국문학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문제의식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 둘째, 평론집의 구성서 '비인간타자와의 쟁론', '불화와 공동체', '가면의 윤리' 세 가지 범주는 시의성과 문학성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응모작에서 제기한 범주는 AI와 문학의 관계 등 현행 예술계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출간 시 문학 대중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예상한다.

본 사업의 응모작을 통해 2023년 사업 응모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격문학 소설, 시, 아동문학, 여성문학, 생태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모했다. 둘째, 문학의 제 장르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면서 각 장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었다. 셋째,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아동문학의 대중적 가치를 볼 수 있었으며, 생태문학을 통해 향후 문학의 전망을 읽을 수 있었다.

본 사업이 지닌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앞으로도 많은 평론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응모해 주기를 기대한다. 본 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평론집을 발굴하고, 문학 독자는 물론 한국 문화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하기를 기대한다.

1차 심의위원회 평론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1차 지원심의 (수필 · 평론 · 희곡 분야)

- 심의분과 : 1차 지원심의 희곡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15: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희곡을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꼭꼭 씹으며 음미하다가 어느새 작품에 빠져 마지막 장에 이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백하는데 두 번 읽은 작품도 여럿입니다. 27명의 작가님들의 54편 이상의 작품들은 소재와 형식 그 대상 또한 다양했습니다.

신체 언어극이나 창극 청소년극 등의 형식을 가진 작품들은 우수한 작품이었고 형식의 특수성도 있었기에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의 취지인 "한국문학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적합했습니다. 오랜 기간 희곡을 쓰시고 연극을 하신 관록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 또한 우수했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의 취지인 "우수 작가의 작품집 발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합했습니다. 근현대사, 고대사, 큰 사건들을 다룬 작품들,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들까지 모두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작기금 액수와 수혜를 받을 인원은 소수이기에 심사위원은 대상 작가를 좁히기 위해 3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1. 주제 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2. 기획과 형식이 새로운가?
3. 희곡집 발간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위의 3가지 기준으로 어렵게 다섯 작품을 선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읽는 즐거움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주신 27분의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1차 심의위원회 희곡 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차 지원심의 (수필·평론·희곡 분야)

- 심의분과 : 2차 지원심의 수필·평론·희곡 분과
- 회의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5: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작가의 집필활동과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사업의 '수필·평론·희곡' 분야의 2차 심의는 모두 네 사람의 심의위원이 1차 심의를 통과한 응모작에 대해 각각 사전 온라인 전수검토를 진행한 후, 현장에서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지원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의는 문학적 가치와 새로움, 지원자의 문학적 역량과 창작 이력, 향후 발전 가능성, 단행본 출간의 영향력과 우리문학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세부장르 간의 응모작 수에 따른 배분의 형평성과 각 장르의 응모작 현황과 수준 역시 고려해야 했다.

수필 분야는 이즈음 가장 활발하게 출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응모작 역시 가장 많았다. 수필 단행본 출간의 활성화는 글쓰기와 출판의 대중화와 맞물린 현상으로 파악 되거니와, 이런 과정에서 한 권의 단행본이 지녀야 할 문학적 가치와 새로움은 수필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존에 발표된 수필들이 수동적으로 묶인 응모작보다는 특정한 주제나 문제의식에 따라 면밀하게 미학적으로 구성된 응모작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평론의 경우 1차 심의를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응모작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이 시대 문학의 화두에 대한 성실한 분석과 해석을 보여주었다. '비평적 개성'이라는 면에서 더 숙성될 필요가 있지만, 평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열리는 이 시대에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비평적 행로가 기대된다.

희곡 분야는 실험적이며 참신한 응모작이 많았다. 가령 무대 실험을 통해 SF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연극이라는 이야기하기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전과는 다른 연극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이 시대 한국문학의 빛나는 개성과 의미 깊은 문학적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한 작품들이 시간을 견디며 또 다른 좋은 기회에 귀한 출판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염원한다.

2차 심의위원회 수필·평론·희곡 분과 심의위원 일동